‘글로벌 관광도시’ 꿈꾸는 광양, 구봉산권 개발 윤곽

기본계획·타당성 조사 보고회
케이블카, 알파인 슬라이드 등
관광 연계…시·종점 노선 구상
올해 기본계획 수립 완료 계획

‘1000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을 목표로 삼은 광양시가 구봉산권 종합관광개발사업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22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과 ㈜LF리조트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봉산권 관광연계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케이블카와 출렁다리 설치를 위한 시·종점 및 노선 구상, 연계 활성화 시설 계획, 구봉산권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다.

구봉산권 관광연계시설 조성사업은 구봉산 관광단지,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POSCO 체험형 조형물로 구성된 구봉산의 3대 핵심 관광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종합관광휴양지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구봉산 정상과 어린이 테마파크를 잇는 케이블카, 구봉산전망대에서 관광단지로 연결되는 ‘알파인 슬라이드’, 구봉산~봉화산을 잇는 ‘세계 최장 골든 출렁다리 770’ 등을 조성해 매력도와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케이블카와 알파인 슬라이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3년 12월 ㈜LF리조트와 투자협약(MOU)을 체결, ㈜LF리조트는 해당 사업에 5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시는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차근차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구봉산권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관광개발사업 중에서도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얼마 전 개장한 ‘구봉산숲속야영장’을 비롯해 사업이 하나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구봉산관광단지,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등 구봉산 핵심 관광자원의 동선을 효율화하고, 흥미를 자극하는 연계시설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백운산, 구봉산, 섬진강 등 3개 권역의 고유성과 특색을 살린 권역별 종합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고흥군, 하반기 귀농 창업·주택구입 대상자 모집

창업자금 최대 3억원 지원
연간 근로소득 등 조건 폐지

전라남도 고흥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하반기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의 대상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22일 고흥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귀농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해 농촌사회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귀농 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자금 세대 당 최대 75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2.0%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방식이다.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및 신용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도시에서 거주한 자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65세 이하(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 △당해 연도에 우리군으로 전입할 예정인 귀농 희망자이며, 귀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귀농인의 농업창업과 성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격 요건과 제외 대상 요건이 완화돼 세부 지침 확인이 필요하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농업 외 다른 산업 분야의 근로 기준이 완화돼 농업을 계속하는 조건 하에 농외 근로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 또 기존의 연간 농외 근로소득 3700만원 미만 요건은 폐지됐다. 기존에 세대주만 가능했던 신청 자격을 청년 등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 신청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하면 된다.

고흥군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심층 면접 심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관련 지침과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귀농어귀촌지원센터 또는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흥=심정우 기자

광양시, 미생물 ‘백광이’ 전국 지자체 최초 특허

백운산 자생 곤충병원성
자체 연구개발 역량 성과

전라남도 광양시가 지난해 식물병 방제제로 특허등록한 ‘지와이균’에 이어 최근 곤충병원성 미생물 특허등록에 성공하며 자체 연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2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수행한 ‘백운산 자생 곤충병원성 미생물 연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최근 ‘백광이(Beauveria bassiana GYF-2)’에 대한 특허등록(등록번호 제10-2822022호)을 완료했다.

이번에 특허 등록된 ‘백광이’는 광양시 백운산 자락에서 자생하는 곰팡이로, 농작물에 병을 일으키는 주요 식물병원균인 균핵병, 시들음병, 잿빛곰팡이병, 탄저병에 대해 뛰어난 항균 능력을 보였다.

또 농작물에 서식하며 피해를 주는 노린재류, 나방류, 잎벌레류, 멸구류 등의 해충에 대해서도 강한 살충효과를 나타내 우수한 친환경 병해충 방제제로 인정받았다.

광양시는 ‘백광이’를 통해 곤충병원성 곰팡이 관련 연구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특허등록을 완료하며 농업 미생물 분야를 선도하는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시는 연내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등록을 통해 친환경 인증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전라남도, 대학, 유관 연구기관 등과도 협력해 균주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광양시 특허균주 관련 사항은 기술보급과(061-797-3559)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훈 광양시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장은 “이번에 개발한 ‘백광이’는 강력한 병해충 방제 효과를 지닌 친환경 농자재로, 실제 농업 현장에 보급되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효과적으로 대체해 농업 경영비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지난 19일 미꾸라지 방류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순천만국가정원 호수정원에 미꾸라지를 방류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친환경 모기유충 방제’ 미꾸라지 방류

“여름철 감염병 예방 기대”

전라남도 순천시는 지난 19일 순천만국가정원 호수정원에서 친환경 모기 유충 방제를 위한 미꾸라지 방류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어린이집 원생,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꾸라지 약 3만9000마리를 순천만국가정원, 해룡천, 조례호수공원 등에 방류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미꾸라지는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의 매개체인 모기 유충을 하루 평균 600~1000마리까지 포식하고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어 친환경 해충 방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하천이나 호수 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 수중 산소를 공급하고 수질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관내 선양어린이집 원생들은 미꾸라지를 만져보고 직접 방류하는 등 생태체험 시간을 가졌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미꾸라지 방류로 여름철 모기 등 해충개체 수가 감소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수구, 공원 등 취약지역 집중방역으로 시민들이 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미꾸라지 방류 외에도 위생해충포획기 가동, 유용미생물 투여, 친환경 방역약품을 이용한 연무소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친환경 방역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주최
구례군, 전국태권도 대회 성료

전라남도 구례군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구례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3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3600여명의 선수단이 격파, 품새, 겨루기 세 종목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각자의 기량을 뽐냈다.

대회는 초등부에서 일반부까지 다양한 연령대 선수들이 참가해 멋진 기술과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볼거리를 제공하고 스포츠를 통해 모두가 화합되는 축제로 펼쳐졌다.

이번 대회를 통해 구례군은 스포츠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는 평가다. 지역 내 숙박, 음식, 관광 등 여러 분야에도 활기를 불어넣으며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이어졌다.

구례=김상현 기자

‘본청사 별관 증축’ 설계공모 선정
여수시, 내년 착공…2028년 준공

전라남도 여수시는 최근 ‘본청사 별관 증축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열고 ㈜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와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가 공동 출품한 공모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축설계 전문가, 대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1단계 심사를 통과한 5개 후보작을 놓고 2단계 발표심사를 진행했으며 당선작은 전통 건축 형식의 기존 청사와 조화를 이루고 중정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공간 구성과 청사 방문객, 보행자, 차량 동선을 명확히 분리해 안전을 확보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모 당선으로 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와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에는 설계권이 부여되며, 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오는 2026년 착공할 계획이다.

여수시 본청사 별관은 2028년 개관을 목표로 현 청사 뒤편 주차장 부지에 62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7492㎡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장흥군, 일자리종합센터 개소
고용 관련 서비스 원스톱 제공

전라남도 장흥군은 지난 20일 ‘일자리종합안내센터’를 개소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일자리종합안내센터는 전라남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구축된 것으로, 도·군·(재)전남인력개발원이 협약을 맺고 민·관이 공동 운영하는 통합 고용서비스 거점이다.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구직자 상담, 직업훈련 연계, 기업 채용 정보 제공, 고용정책 안내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판식에는 김성 장흥군수, 장흥군의회 의원, (재)전남인력개발원 관계자, 지역 산업단지 협의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현판식, 시설 관람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장흥=김전환 기자